

# 韓醫學的 人間觀

## -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

박성규,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 The perspective on humans in a view of Oriental Medicines - discussion based mainly on Dongeuibogam -

Park Sung Kyu, Wung-Seok Cha, Kim Nam Il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Medical Science in general is a study dedicated to huma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human is being seen in medical science. The difference of this perspective among various medical scienc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hows the difference in ways of understanding human, and furthermore, difference in ways of understanding diseases. On the other side, Oriental Medicines tends to perceive human as a whole. Heo Joon's perspective on human is elaborated in his book, Dongeuibogam. The foundation of this perspective is found in the Thesis of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Neijing. There are many discussions in the Thesis of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which include the thesis of correspon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which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in terms of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and the thesis of xing and color: which offers the tool of making diagnosis on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since xing and color designates the result of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Other methods are also merely ways of expressing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in different angle. After all, the perspective of human shown by Heo Joon can be explained in one word as the thesis of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and the principles of its theory, which are the thesis of correspon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the thesis of xing and color are also nothing more than a tool of understanding Four Generals and Five Constants more efficiently.

keyword: Oriental Medicines, Dongeuibogam, Heo Joon, Perspective on Humans

---

## I. 序論

2003년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료되어 31억 개의 DNA 염기서열이 모두 밝혀졌으나, 과학 발달에

---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힘입어 모든 인체의 신비가 걷히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란 기대는 일거에 무너졌다. 인체는 여전히 배일에 싸인 부분이 많고 서양의학은 여전히 대부분 질병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 분석에 의해 인간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은 근본부터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환원주의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분석은 한계에 다다르고 통합적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통합적 사고는 동아시아의 오랜 연구 방법이고, 한의학은 그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 시점에서 당시 세계최고수준의<sup>2)</sup> 의학교과서를<sup>3)</sup> 저술하였고 한의학의 태두이기도<sup>4)</sup> 한 허준이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방황하고 있는 현대의학이 갈피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5)</sup>

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크게 보면 생물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독자적 길을 걸어왔고 생물학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sup>6)</sup> 의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관점차이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나아가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방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인간관은<sup>7)</sup> 인간에 대한 모델링이다. 인간을 어떻게 정형화하여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모델링이 정확하고 정교할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며 활용도는 커진다.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을 정형화하였다. 인문학과 자연학은 서로 구분 없이 상호교감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정형화이론을 구축해왔다.<sup>8)</sup> 허준의 인간관 또한 인간을 정확히 이해하여 생리, 병리, 치료에 이르는 일련의 의학기술을 정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에 이르러 ‘통섭’<sup>9)</sup> 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학문의 영역 구분 없이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서양학문의 한계를 직감한 몇몇 선각자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나, 허준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인문학, 자연학 그리고 의학의 통섭을 이루었다.

서양학문은 인간을 분석적으로 보아왔으며 DNA 분석은 그 정화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학 또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게을리 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 그러한 시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세분화하기를 즐겨하기에 항상 벽에 부딪혀왔다. 감기를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식하고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하여 인체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항생제를 투여해왔으며 이제 항생제는 바이러스의 진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두통이 생기면 원인을 치유하기보다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함으로써 통증만을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혹은 외부의 도움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없애왔다. 환원주의에 바탕을 둔 서양학문은 과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생물학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간을 나누어 보면

2) 金南一, 『韓國韓醫學史 再定立(하): 제7장 朝鮮後期の醫學』, 韓國韓醫學 研究所, 1995, 서울, 13쪽  
全炳機, 『韓國科學史』, 이우출판사, 1982, 서울, 324쪽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14쪽: 재인용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268쪽  
『東醫寶鑑』이 당시 동아시아 최고 의학이라고 평하고 있다.

3)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79-80쪽

4) 金南一, 『東醫學과 中醫學은 같은 의학인가?』, 醫林 통권 316, 2005, 41쪽  
'1610년 간행된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그 시작인 '東醫學'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동의학이 독자적 전통을 가진 의학임을 만방에 알린 사건'

5) 金南一, 『『東醫寶鑑』의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醫林 통권 317, 2005, 41쪽  
'한국의 한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준의 의학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6) 朴贊國, 『에리히 프롬의 인간관-실존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7권 2호, 1996, 157쪽  
'인간적인 욕구들, 상호 관계나 초월 그리고 정향 체계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욕구들에 상응하는 생리학적 기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7)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6 3판3쇄, 3071쪽  
인간을 보는 관점.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예지인(Homo Sapiens) 종교인(Homo Religiosus) 공작인(Homo Faber) 등이 있음.

8) 야마다 케이지 지음, 김석근 옮김, 『朱子の 自然學』, 통나무, 1998, 서울

9)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장재익 공역, 『통섭: 지식의 대통합』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이자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온 에드워드 윌슨은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학이 통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섭론은 환원주의적 과학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로 지금까지 서양학문의 자세와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이다.

불수록 동물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sup>10)</sup> 방향을 그만하고 본래의 학문인 생물학으로 돌아오길 주장해도<sup>11)</sup> 이에 대한 마땅한 반박이 없다.

반면, 한의학은 인간을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했다.<sup>12)</sup> 인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는 인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허준은 당시 가장 발달한 형태를 보인 조선성리학을 인간에 투영하였고<sup>13)</sup> 보다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에 성공했다. 허준의 인간관에 대한 이해 없이 『동의보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나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동의보감』은 아직도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sup>14)</sup> 일상에서 접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고질병·난치병 등도 치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허준의 의학과 의술이 유효하며, 의학의 핵심 패러다임인 인간관 또한 유효하기 때문이다. 임상에서의 효과만을 놓고 보면, 『동의보감』은 현존하는 어떠한 의학교과서보다도 인간의 생리와 병리를 잘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세운 치법 또한 정

교하기에 현대 한의학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지금 허준의 인간관은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허준의 인간관을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허준의 인간관 강령으로 天人相應論과 形色論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2장에서는 내경적 인간관으로 허준의 인간관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四大五常論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 3장에서는 인간관에 대한 의학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 II. 本論<sup>15)</sup>

허준은 이전까지의 의학적 인간관<sup>16)</sup> 모두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종교적 관점을 망라하여 인간관을 통합하였다.<sup>17)</sup>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내재화에 성공하여 보다 성숙된 학문을 모색하고 이를 통치에 적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이와 이황은 그 정점에 있었다.<sup>18)</sup> 의학적인 측면에서도<sup>19)</sup> 이전의 의학을 정리하고<sup>20)</sup> 새로운 의학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sup>21)</sup> 허준의 인간관은 의

10) 최재천, 『인간과 동물』, 궁리출판, 2007, 서울, 371쪽

‘우리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은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지문도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유전자가 거의 99퍼센트를 공유합니다. 계통분류학적으로 보면 오랑우탕이 가장 먼저 갈라나가고 다음은 고릴라 그 다음은 침팬지 그리고 인간입니다. 가장 먼저 갈라진 오랑우탕을 다른 분류로 빼고 고릴라 침팬지 인간을 같이 묶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만 인류과로 묶고 다른 동물들은 유인원과라는 다른 과에 모아 놔줍니다. 침팬지와 우리는 아마 같은 성을 써야 할 겁니다. 이쯤만 조금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우리 인간의 독특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11) 최재천, 앞의 책, 18쪽  
‘윌슨 교수는 1975년에 출간한 『사회생물학』에서 모든 학문은 생물학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학문은 생물학으로 귀착한다고 주장했다’

12) 林成圭, 『許浚의 自然觀』,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6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넘어서 우주와 자연조차도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13) Paul U. Unschuld, 『Medicine in China, a History of Ideas』, 3-4쪽  
Ackerknecht의 말을 인용하여 의학은 Cultural system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4) 金南一,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關한 試論」, 2004 韓國醫史學會 정기학술대회 논문, 3쪽  
『東醫寶鑑』을 韓國韓醫學의 중심에 놓여있는 중요한 명저로 규정하고 현재에도 한의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東醫寶鑑』을 연구하고 임상에 활용하는 유파를 ‘東醫寶鑑學派’라고 명명하였다.

15) 본 논문은 2002년 1학기에 실시된 金南一 교수의 ‘동의보감 특강’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당시 『東醫寶鑑』을 여러 주제로 분류하여 강의했는데, ‘人間論’(副題: 體質)은 제 2장이었다. 器(上, 中, 下), 五臟六腑(外候), 肥瘦, 黑白, 長短, 男女, 老少, 勇怯, 職業, 貴賤(脫營失精) 등 10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강의했다.

16) 김수배, 「칸트의 인간관-실용적 인간학의 이념과 그 의의」, 철학연구 37권, 철학연구회, 1995, 180쪽

17) 김남일, 「東醫學과 中醫學은 같은 의학인가?」, 42쪽  
‘『東醫寶鑑』은 백과사전 성격의 종합의서’

18) 權奇星, 「退溪와 栗谷의 人間觀에 對한 比較연구」,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8권, 2000, 41쪽

19)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關한 研究」,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21쪽

金洪均은 위 논문에서 조선 초기는 基礎 整理期로 16세기 중엽 仁宗까지, 中期는 韓醫學 隆盛期로 18세기 말 정조까지 그리고 末期는 새로운 유형의 의학기로 20세기 초 일제 강점 전까지 구분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한의학 융성기에 정점을 형성하였다.

20) 安相佑, 「『醫方類聚』에 對한 醫史학적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2000, 16쪽, 30쪽

『鄕藥集成方』과 『醫方類聚』는 醫藥의 최대 데이터베이스였고 이를 위해 설치된 ‘醫書習讀官’은 의서에 조예가 깊은 의가와 유비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조선 중기의 융성은 이러한 문화적 자양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1) 許浚, 『原本 東醫寶鑑 完營重刊影印本 新增版』, 南山

학적 전통에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다.<sup>22)</sup>

허준은 『동의보감』을<sup>23)</sup> 통하여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소개하고 있다. 인간은 복잡한 생체조직이기에 단순한 잣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복합적 척도가 필요하고 허준은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척도를 제공하고 있다. 허준의 인간관은 『동의보감』 목차에 잘 드러나 있다. 전체 구성은 인간관을 염두에 두고 당시 최고의 유의, 어의들과 함께 뼈대를 구성하였다.<sup>24)</sup> 가장 중요한 「身形藏府圖」에서는 天人相應論과 形色論을 논하였고, 身形門에서는 心身論, 男女論, 老少論, 稟賦論 등을 논한 후 이를 養生論에 연결하였다. 內景篇에서는 精·氣·神·血의 四大論과 肝·心·脾·肺·腎의 五常論을 전개하여 四大五常論을 완성하였고, 外形篇은 인간을 上下·左右·前後·表裏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雜病篇에서는 六氣形證, 六經形證, 雜病形證 등이 거론되었고, 더불어 四時晝夜, 自然環境, 社會環境 등 環境的 人間觀이 전개되었다. 본 논문은 『동의보감』에서 사용한 다양한 인간관을 살펴보고 그 요체는 어떠한지 의사학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人間觀 綱領

### (1) 天人相應論<sup>25)</sup>

天人相應論은 허준이 가장 중시하여 『동의보감』의 강령인 「신형장부도」에서 먼저 거론했다.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것은 인간이 小宇宙이기 때문인데,<sup>26)</sup> 相關的 思考가 확대된 것으로 文明의 시작에서부터 존재했다. 서양에서도 ‘우주 아날로

지’라 하여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sup>27)</sup> 17세기 중엽이후 自然科學이 부상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더욱 강화되어 지금도 기본 원리로 증시되고 있다.<sup>28)</sup> 『동의보감』의 天人相應論은 매우 치밀하여 서양의 우주 아날로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sup>29)</sup> 天人相應의 단계를 넘어 天人合一<sup>30)</sup>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천인상응론은 총강이기에 『동의보감』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생명의 근원은 우주의 근원과 같다는 측면에서<sup>31)</sup> 「身形門」 제일 처음인 「形氣之始」에서 우주와 생명의 형성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氣·形·質이 생기는 시기에 따라 太易·太初·太始·太素 등 넷으로 나누어 설명한다.<sup>32)</sup> 이외에도 인간의 호흡은 천지의 潮水를 닮았고,<sup>33)</sup> 사람의 마음은 복두칠성과 같다고 한다.<sup>34)</sup>

인간의 수명 또한 하늘에 달렸는데, 선천의 기운인 원기는 부모뿐만 아니라 천지로부터 받았으므로,<sup>35)</sup> 아이를 수태할 때는 천지간의 기운이 좋을 때를 골라야 한다.<sup>36)</sup> 선천의 기운뿐만 아니라 후천의 기운도 천지로부터 자양 받는다. 天氣 즉 五氣는 코와 喉를 통하고, 地氣 즉 五味는 입과 咽을 통하여 인체를 자양하므로, 천지와 인체가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특히, 폐에 24개의 구멍이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것은<sup>38)</sup> 24절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폐가 호흡을 통하여 자연과 일체

堂, 1998, 5刷, 「東醫寶鑑序」, 1쪽

22) 車雄碩, 「李挺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2001, 58-59쪽

23) 대한전통한의학회,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지산출판사, 1997, 69쪽

24) 許浚, 앞의 책, 「東醫寶鑑序」, 1쪽

25) 朴成圭, 「許浚의 自然觀」,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7-23쪽

26)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2차인쇄, 101-103쪽

27) 조셉 니담,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을유문화사, 406쪽 - 412쪽

28) 김완희, 『한의학원론』, 성보사, 1999 3쇄, 73-74쪽

29) 許浚, 『原本 東醫寶鑑 完營重刊影印本 新增版』, 南山堂, 1998, 5刷, 「身形藏府圖」, 72쪽

30) 서용화, 「퇴계의 인간관」, 퇴계학보 107-108합집, 2000, 서울, 35쪽

31)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2005, 21쪽

32)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之始」, 72쪽

33)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定壽夭」, 73쪽

34) 許浚, 앞의 책, 「身形: 人心合天機」, 75쪽

35) 許浚, 앞의 책, 「身形: 壽夭之異」, 73쪽

36) 許浚, 앞의 책, 「婦人: 陰陽交合避忌」, 605쪽

37) 許浚, 앞의 책, 「鼻: 鼻爲女牝之門戶」, 238쪽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2차인쇄, 21 - 22쪽

許浚, 앞의 책, 「神: 五味生神」, 94쪽 ‘內經曰,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38) 許浚, 앞의 책, 「肺: 肺形象」, 145쪽

됨을 설명해주고 있다.

어머니는 자연의 법을 따라 木·火·土·金·水, 즉 五行 순서대로 태아를 자양하고,<sup>39)</sup> 뱃속의 태아가 자라는 것은 腎水에서 시작하여 이를 상극하는 오장이 순서대로 자라나며, 육부의 자라남은 이와 반대로 相侮하는 순으로 자라난다.<sup>40)</sup> 소아가 자라는 것을 變蒸이라고 하는데 천지생성과 순서를 같이하여 水·火·木·金·土의 순서로 자란다.<sup>41)</sup>

상관적 사고에서 출발한 천인상응론은 중요한 원리이다. 우주론과 환경론 그리고 인간론을 하나로 묶어준다.<sup>42)</sup> 서양에서 우주 아날로지가 사라진 것은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17세기 중엽부터 자연과학이 발달되자, 자연과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sup>43)</sup> 과학은 학문의 제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학문의 제왕이었던 신학과 철학조차도 과학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붙이고 있다. 이는 神性的 몰락뿐만 아니라 인성의 몰락을 의미한다. 더 이상 신성이나 인성이 간여할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에 대한 기본적 회의가 대두된다. 과연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지식의 너비와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무지의 세계는 더욱 넓어진다. 특히, 생명분야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다. 양자역학의 중심축인 ‘불확정성 원리’<sup>44)</sup>는 과학의 오차를 예견했다. 더불어 DNA해석이 더 이상 생명의 열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시적 혹은 기계적 접근의 한계를 깨달은 서구 과학자들은 이제 발 빠르게 거시적 혹은 유기체적 접근으로 돌아서고 있다.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라고 정의했다.<sup>45)</sup> 상관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천인상응론은 거시적 접근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다. 21세기 학문은 천인상응론의 부활을 바탕으로 재건될 것이다.

우주 아날로지와 국가 아날로지는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鍊金術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sup>46)</sup> 양생술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 (2) 形色論

形色論은 형태과 색택을 살펴서 내부를 분석한다. 이는 현대 공학에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보고 내부를 설계하거나 분석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sup>47)</sup>

### 1) 形態論

형태론은 「신형장부도」에서 천명한 형색론 중에서 전반부에 대한 것으로 長短 大小 肥瘦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肥瘦論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체에서 길거나 크거나 살찐 것이 짧거나 작거나 마른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덩치가 크면 그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고 이는 허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마른 사람은 치료하기 쉽고 살찐 사람은 치료하기 어렵다.<sup>48)</sup>

사람을 치료할 때도 형태를 먼저 파악한 후에 허실을 조절해야 한다. 肥瘦는 허실을 구분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sup>49)</sup> 살찐 사람은 장위도 크므로 몸이 무겁고 게으르기 쉬우며 기의 운행이 더딜 수밖에 없으며,<sup>50)</sup> 중풍<sup>51)</sup>도 걸리기 쉽고, 소갈<sup>52)</sup>에도 걸리기 쉬운 반면, 살찐 부인은 출산하

39) 許浚, 앞의 책, 「婦人: 十月養胎」, 605-606쪽

40) 許浚, 앞의 책, 「小兒: 臟腑生成」, 632쪽

41) 許浚, 앞의 책, 「小兒: 變蒸候」, 633쪽

42) 허택 이요성 역주, 『주자어류』, 청계, 1999, 서울, 87쪽

具萬玉,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 I』, 혜안, 2004, 서울, 81쪽

43) Stephen F. Mason, [A History of the Sciences], Abelard-Schuman Limited, 1970 6th Ed, 291쪽

44) Stephen F. Mason, 앞의 책, 557쪽

45) 제임스 러브록, 홍옥희 옮김, 『가이아-살아있는 생명체로의 지구』, 갈라파고스, 2004

46) 조셉 니담, 앞의 책, 413쪽 - 419쪽

47) Bohdan T. Kulakowski 외, 『Dynamic Modeling and Control of Engineering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rd Edition

48) 許浚, 앞의 책, 「足: 脚氣病證」, 301쪽

49) 許浚, 앞의 책, 「鍼灸: 鍼補瀉法」, 757쪽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

50) 許浚, 앞의 책, 「夢: 身重嗜臥」, 117쪽

51) 許浚, 앞의 책, 「風: 肥人多肥中風」, 359쪽

52) 許浚, 앞의 책, 「消渴: 消渴之源」, 506쪽

기 어렵다.<sup>53)</sup> 나이가 먹으면 기력이 쇠하여 허해져 살이 찌기 쉽다.<sup>54)</sup>

살찐 사람은 기가 허하여痰이 많으므로 담을 소통시키고 기를 보해야하고, 마른 사람은 혈이 허하여火가 있으므로 화를 사하고 음을 자양해야 한다.<sup>55)</sup> 형태에 따라 살찐 사람과 마른 사람을 구분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예는 많은데, 『동의보감』에서는 帶下, 赤白濁, 痞證, 腹中窄狹, 風病, 脹滿, 惡阻<sup>56)</sup> 등에 보이고 있다.

살찐 것이 마른 것만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살찌더라도 윤기가 있으면 형색이 균형을 갖추어 건강하다. 비위가 모두 왕성하면 잘 먹고 살이 찌기 쉬우며 색택도 좋다.<sup>57)</sup>

위 형태론은 인체 전체를 보고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본 것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코가 크다든지, 입이 작다든지 하나하나의 형태가 그 개체의 성질을 결정짓는다. 드러난 개체의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는 내경적 인간관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론은 비수론으로 집결된다. 장단과 대소는 거의 거론하지 않고 비수만을 거론한다.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다는 것으로 이를 근거하여 박인규는 ‘큰 것이 흠이다’ 라고 도식화하였다.

## 2) 色澤論

색택론도 신형장부도의 형색론이 총강이다. 黑白蒼嫩 厚薄의 비교를 통하여 색택의 좋고 나쁨을 논하였다.<sup>58)</sup> 형태론에서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다고 정의하였으나 이러한 형태론적 기준도 색택의 상태에 따라 바뀌어

진다. 색택이 좋으면 비록 형태가 조금 나쁘더라도 건강이 좋으며, 색택이 나쁘면 비록 형태가 우위에 있더라도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살찌더라도 윤기가 있으면 혈기에 여유가 있다.<sup>59)</sup>

색택론에서 먼저 거론되는 것은 흑백의 비교이다.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여 흰 것은 폐기가 허한 것이고 검은 것은 신기가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검고 마른 사람은 풍습에 견디기에 치료하기 쉽고, 살찌고 붉거나 흰 사람은 풍습을 견디지 못하기에 치료하기 어렵다.<sup>60)</sup>

치법에서도 흑백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脹滿治法<sup>61)</sup>에서도 색백인은 氣虛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훈에서<sup>62)</sup> 肥白者에게는 기를 보하는 四君子湯 가 미방을 쓰고 黑瘦人에게는 이진사물에 가미방을 쓰고 있다. 황기는 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므로 肥白한 사람이 땀이 많으면 쓸 수 있으나 蒼黑한 사람은 기가 실하므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sup>63)</sup>

색택에 기의 충실도가 드러나는 것이 蒼嫩論이다. 색택이 밝고 기운찬 것은 기운이 넘치는 것이고, 색택이 어린 것은 기운이 부족한 것이다. 열은 것은 짙은 것만 못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같은 색이라고 하여도 열고 짙은 것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가린다. 색의 好惡는 생기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sup>64)</sup>

얇고 두터운 것도 기운의 성쇠를 나타낸다. 얇은 것은 두터운 것만 못하다고 천명한다. 얇고 두터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육부의 특색이기도 하다. 육부의 성쇠가 인체의 얇고 두터움의 차이로 나타난다. 담은 손발톱의 厚薄에서 기운의 성쇠를 읽는다. 胃는 膈肉의 후박에서 위기의 성쇠를 읽는다. 小腸은 맥과 피부의 후박에서 기의 성쇠를 읽는다. 대장은 피부의 후박에서 기의 성쇠를 읽는다. 삼초와 방광은 주리와 피부의 후박에서 기의 성쇠를 읽는다.<sup>65)</sup>

53) 許浚, 앞의 책, 「婦人: 瘦胎令易產」, 611쪽

54) 許浚, 앞의 책, 「中風: 中風虛證」, 368쪽

55) 許浚, 앞의 책, 「用藥: 肥瘦用藥」, 351쪽 ‘肥人氣虛多痰, 宜豁痰補氣. 瘦人血虛有火, 宜瀉火滋陰.’

56) 許浚, 앞의 책, 「胞: 帶下治法」, 160쪽; 「小便: 赤白濁」, 177쪽; 「胸: 痞證治法」, 266쪽; 「腹: 腹中窄狹」, 276쪽; 「風: 風病治法」, 369쪽; 「脹滿: 脹滿治法」, 502쪽; 「婦人: 惡阻」, 607쪽

57) 許浚, 앞의 책, 「胃: 胃病虛實」, 150쪽

58) 許浚, 앞의 책, 「身形: 身形藏府圖」, 72쪽

59) 許浚, 앞의 책, 「辨證: 肥瘦辨病候」, 341쪽

60) 許浚, 앞의 책, 「足: 脚氣病證」, 301쪽

61) 許浚, 앞의 책, 「脹滿: 脹滿治法」, 502쪽

62) 許浚, 앞의 책, 「頭: 眩暈」, 202쪽

63) 許浚, 앞의 책, 「湯液: 草」, 724쪽

64) 許浚, 앞의 책, 「審病: 五色占吉凶」, 338쪽

흑백·창눈은 오장의 성쇠를 알려주는 한편, 후박은 육부의 성쇠를 드러낸다. 두터우면 육부가 성한 것이요, 얇으면 육부가 쇠한 것이다. 흑백, 창눈, 후박으로 대표되는 색택론은 오장육부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한다.

### 3) 形色論 應用

형색론은 천인상응론과 함께 허준이 가장 중시한 인간관이다. 허준의 인간관 중심에는 사대오상론이 있으나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형색론이다. 형색론은 진찰의 필수요소이다. 진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서 아는 것인데, 이는 형색을 보아서 병을 안다는 것이다.<sup>66)</sup> 형색을 살핀다는 것은 안색을 살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것이다. 형색은 바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를 파악하면 인체 내부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sup>67)</sup>

형색을 살피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얼굴 각 부분이 오장 육부와 인체의 각부에 대응되기 때문에 오장육부나 인체 각부의 이상을 얼굴의 형색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sup>68)</sup> 이외 오장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과 육부의 厚薄 緩急 直結 또한 형색으로 오장육부의 타고난 바를 판단하는 것으로 형색론의 중요한 응용분야이다. 이 부분은 뒤에 五常論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결론적으로 인체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모든 다양성이 형색론으로 귀결되어 특징지어진다.

형색론에서 형태와 색택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형태는 혈·음으로 표현되고 색택은 기·양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하고 장수한다.<sup>69)</sup> 양생에서 神을 먼저 기르고 形을 길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形과 氣의 조화를 이룬 것이다.<sup>70)</sup>

색택과 함께 상을 드러내는 것이 맥이다. 脈象이라고 통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형상의 조화를 맥을 통하여 알 수 있다.<sup>71)</sup> 용감함이 밖으로 드러난 사람은 용감하다. 역으로 용감한 사람은 용감한 형상이 밖으로 드러난다.<sup>72)</sup>

面白人은 혈을 손상하기 쉽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하며,<sup>73)</sup> 코끝이 붉은 것은 혈열로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많다.<sup>74)</sup> 『동의보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색을 도구삼아 심병, 변증, 진맥, 용약을 논하고 있다.

## 2. 內景的 人間觀

허준은 2천년 동안 존속한 음양오행론을 개편하여 四大五常이라는 체계를 만들었다. 허준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을 조명하였다.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 의학적 최적화를 위하여 새롭고 다양한 도구로 인간을 정형화하였다. 『동의보감』은 이러한 허준의 인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허준의 다양한 인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경」 편에 전개된 四大五常論이다.<sup>75)</sup> 의학은 인간이라는 밀폐된 상자를 얼마나 잘 모델링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요즘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간 내부를 상당부분 조영할 수 있지만 조직과 기능의 상호작용에 대해 정형화되지 않아 치료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양방병원에서 치료보다는 검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대오상론은 2천여 년 동안 축적된 음양오행론이 총괄된 것으로 음양론과 오행론의 어색한 동거를 일거에 정리하여 사대와 오상으로 잘 버문 이론이다. 이로써 인간 내부를 보다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근간으로 생리, 병리, 진단, 치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sup>76)</sup>

65) 許浚, 앞의 책, 「膽府: 膽外候」, 149쪽; 「胃府: 胃外候」, 150쪽; 「小腸府: 小腸外候」, 151쪽; 「大腸府: 大腸外候」, 152쪽; 「膀胱: 膀胱外候」, 153쪽  
66) 許浚, 앞의 책, 「審病: 神聖工巧」, 337쪽  
67) 許浚, 앞의 책, 「審病: 診病之道」, 337쪽  
68) 許浚, 앞의 책, 「審病: 明堂察色」, 337-338쪽  
69)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定壽夭」, 73쪽  
70) 許浚, 앞의 책, 「神: 神爲一身之主脚」, 94쪽

71) 許浚, 앞의 책, 「診脈: 肥瘦長短異脈」, 346쪽  
72) 許浚, 앞의 책, 「辨證: 勇怯異形」, 341쪽  
73) 許浚, 앞의 책, 「內傷: 飲酒禁忌」, 431쪽  
74) 許浚, 앞의 책, 「鼻: 鼻色占病」, 240쪽  
75) 김남일 외,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15쪽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나 인체관은 「내경」 편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四大과 五常을 바탕으로 잠시 形을 빚어 놓은 것이다.”<sup>77)</sup>

### (1) 四大論 - 精·氣·神·血

허준은 불가의 地·水·火·風 四大를 사용하여 사대론을 구성한다.<sup>78)</sup> 지·수·화·풍이 각각 정·기·신·혈에 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대론을 끌어가기 위하여 불가의 이론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지·수·화·풍 사대는 「신형」 문에서 한번 거론하고 내경의 정·기·신·혈로 연결된다. 정·기·신·혈의 상호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생명체로서의 인체를 보다 정적인 상태에서 관찰할 때 기능과 구조의 양면이 관찰되고, 기능을 다시 분석하면 정신기능(不隨形的 機能)과 육체기능(隨形的 機能)의 양면으로, 구조를 다시 분석하면 그 구조형성의 단위(內現的 構造)와 성분(外現的 構造)이란 양면으로 관찰되는데 이를 각각 神·氣·精·血이라 한다. 이것은 음양론에 입각하여 一氣의 생화극변의 과정을 사요소적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陽中之陽을 神, 陽中之陰을 氣, 陰中之陰을 精, 陰中之陽을 血로 매김질한 것이며 결국 이름만 다를 뿐 같은 類이다. 精은 형성의 단위 개념이고, 神은 생명의 정화로서의 정신이며, 氣는 人身의 생리활동과 외부활동을 하는 생명에너지이고, 血은 혈액을 포괄하는 생체물질로 확대된 개념이다.”<sup>79)</sup>

四大는 体が 되고 形이 되어 構造·組織이 된다. 형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四라는 숫자와 大를 사용하였다.<sup>80)</sup> 즉 인간의 형틀을 만드는 요소는 精·氣·神·血이라고 본 것이다. 마치 불가에서

地·水·火·風을 인체의 요소로 보았듯이.

精·氣·神·血로 구성된 형틀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섯 가지의 부산물이 생긴다. 夢·聲音·言語·津液·痰飲이 그것이다. 夢·성음·언어·진액·담음은 조직 즉 형틀의 문제로 생긴 병리현상에 대하여 설명한다. 역으로 수면이나 목소리, 언어, 진액, 담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형틀의 문제 즉 精·氣·神·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기·신·혈은 형틀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므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면에 이상이 생겼든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거나, 언어에 조리가 없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침을 자주 뱉거나, 몸에 담음이 있어 여러 담음 증상이 생기는 것은 精·氣·神·血 즉 형틀의 문제이므로 본질을 고쳐야 한다.

정·기·신·혈의 문제가 夢, 성음, 언어, 진액, 담음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四라는 형틀의 수에서 五라는 운행의 수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대와 오상이 서로 갈마들며 대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 (2) 五常論 - 肝·心·脾·肺·腎

허준의 오상론은 오행학설을 근간으로 전개된다. 오행설은 오래된 사상으로 음양설과는 별도로 발생하여 내려오다가 전국시대 후기에 이르러 음양설과 합해지게 된다.<sup>81)</sup> 허준은 오행을 간·심·비·폐·신 오장에 연결하여 장부론을 전개하였다. 오장의 상호작용은 인체 운행의 근본이 되며 四大와 함께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설정하였다. 五常은<sup>82)</sup> 인체의 내부를 운행하므로 인체 내부의 제반 활동을 관할한다.<sup>83)</sup> 인체 내부를 운행하기

76) 김남일, 「『東醫寶鑑』의 목차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醫林 통권 317, 2005, 41쪽

77) 許浚, 앞의 책, 「身形: 身形藏府圖」, 72쪽 ‘皆稟四大五常, 假合成形’

78) 許浚, 앞의 책, 「身形: 四大成形」, 72쪽

79) 김완희, 앞의 책, 115쪽

80) 홀수는 양의 수이어서 운행을, 짝수는 음의 수이어서 조직을 구성한다. 땅의 덕은 ‘直方大’ 한데(원본주역 171쪽) 땅은 조직을 구성하여 형이 되고 하늘은 운행을 담당하여 질이 된다.

81) 李浚川, 장경선 외, 『醫易學思想』, 405쪽

82) Guyton & Hall,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W.B. Saunders, 1996 9th, Page 4

인체 내부는 Homeostasis, 즉 항상성으로 표현되는데 동적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현대생리학의 최신 개념이다. 五常은 다섯 요소(五)가 서로 상생·상극을 통하여 항상성(常)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허준은 이미 인체 내부에 대하여 항상성이란 개념을 정립하였다.

83) 許浚, 앞의 책, 「審病: 五臟者中之守」, 339쪽



때문에 인체의 강함과 약함의 근원이 된다. 오장의 운행이 원활하면 인체가 튼튼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질병이 들고 이러한 징후는 신체 외부로 발현된다.<sup>84)</sup>

오장은 精·神·혈·기·혼·백을 간직한다.<sup>85)</sup> 그러므로 의사는 마땅히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sup>86)</sup> 오장은 인체 내부를 운행하므로 오장의 성쇠는 중요하다. 오장의 성쇠는 안색에 나타나니 안색을 보면 오장뿐만 아니라 인체의 성쇠도 가늠해 볼 수 있다.<sup>87)</sup>

육부는 오장을 도와 에너지를 공급한다. 따라서 육부의 부조가 오장에 나타나며 오장의 부조가 육부에 나타난다. 오장육부의 활동은 「내경」 편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장부의 부조는 인체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데 오장육부뿐 아니라 각문에서 밝힌 것 외에도 동의보감 곳곳에 장부의 부조가 형색에 나타나 질병에 이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장부의 부조가 형색에 드러난 이들을 뒤에 ‘家’를 붙여 표현하고 있는데, 肝家, 心家, 脾家, 肺家, 腎家, 膽家, 胃家 등이 그것이다.

五常은 質이 되고 象이 되어 機能·運行이 되므로, 양수 五와 동적 평형을 나타내는 常을 취하여 만들었다. 인체에서 오상은 오장육부가 되니 포·충·소변·대변은 오장육부의 생리·병리적 결과물이다. 역으로 포·충·소변·대변의 이상은 바로 오장육부의 부조를 의미한다. 이는 五가 四로 나타난 것이니, 오상과 사대가 서로 갈마들며 대대적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 (3) 四大五常論

四大는 精·氣·神·血을 의미하며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形을 형성한다. 五常은 肝·腎·脾·肺·腎 오장을 의미하며 인체를 운용하는 주

체가 되며 質을 형성한다. 四大는 体が 되고 形이 되어 構造·組織이 되며, 五常은 質이 되고 象이 되어 機能·運行이 된다.

사대와 오상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대표적 모델인 음양과 오행은 분리 가능한 개념이다. 시원이 다르고 독자적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음양과 오행은 어느 하나로도 온전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러하기에 음양오행으로 통합된 후에도 상당기간 상호관계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사대는 형을 나타내고, 오상은 질을 나타내기에 형질이 하나가 되어 존재물을 완성하듯이, 사대와 오상도 통합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는 신형의 처음에 정의된 것과 같다. 形氣가 시작되는 것을 정의하면서 太易, 太初, 太始, 太素를<sup>88)</sup> 정의하는데 태시는 형이 시작되는 것이고 태소는 질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로써 형질이 완성된다.<sup>89)</sup> 즉, 사대로 형이 형성되고 오상으로 질이 구성되어 완전한 개체로 형기를 이룬다. 허준의 사대오상론은 한의학의 융성기인 조선중기에<sup>90)</sup> 당시 최고조에 이른 조선성리학을<sup>91)</sup>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허준의 위대함은 오랜 세월 지배해온 음양오행론의 모호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인간관 즉 사대오상론으로 정리한 데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허준은 天人相應論, 形色論, 心身論, 男女論, 老少論, 稟賦論, 養生論, 四大五常論, 外形論, 六經形證, 雜病形證, 環境影響論(地理, 四時, 晝夜, 社會環境) 등 다양한 인간관을 논하였다. 인간은 가장 복잡한 생물체이기에 이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도구를 통하여 나온 결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인간과 질병을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8)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周易研究』 4집, 232쪽

89)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之始」, 72쪽

90)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1992,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1쪽

91) 이동희, 『조선조 주자학의 철학적 사유와 쟁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서울

84) 許浚, 앞의 책, 「審病: 五臟者身之強」, 339쪽

85) 許浚, 앞의 책, 「五臟六腑: 臟腑異用」, 137쪽 ‘五藏者,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

86) 許浚, 앞의 책, 「五臟六腑: 醫當識五臟六腑」, 137쪽

87) 許浚, 앞의 책, 「審病: 明堂察色」, 337-338쪽

허준의 다양한 인간관 중에서 핵심은 바로 四大五常論이다. 인간의 내부를 정형화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천인상응론은 사대오상으로 이루어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고, 형색론은 사대오상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형색을 통하여 사대오상을 유추할 수 있다. 허준이 천인상응론과 더불어 형색론을 중시한 이유도 형색을 통하여 사대오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이 형색에서 시작하며 형색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sup>92)</sup>

### 3. 인간관의 변천

허준의 인간관은 오랜 세월 인간을 탐구한 결과가 결집되어 나타난 것이다. 허준이전에도 인간관에 대한 탐구와 설명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인간관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의를 가질 만한 큰 줄기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허준의 인간관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三寶論, 陰陽五行論, 四大五常論, 四象論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 (1) 三寶論

삼보론은 精·氣·神 三寶로 인간을 정형화한 것으로, 天·地·人 三才思想이 인간에 투영된 것이다. 노자는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sup>93)</sup>라고 갈파하였다. 만물의 생성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음양의 성격을 잘 드러내<sup>94)</sup> 음양론의 일부로 인용되는 구절이나, 실제 삼재사상과 관련이 깊다.

천·지·인 삼재사상은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도구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세이라 숫자가 갖는 특이한 의미도 삼재사상에서 비롯된다. 삼재사상이 인체에 적용되면서 삼보사상으로 변모되었다. 천·지·인에 각각 해당되는 요소로서 精·氣·神이 채택되었으며 인체는 정·기·신 삼보의 상호균형과 작용에 의해 건강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정·기·신 삼보는 삼단전에서 갈무리하여 상호 작

용한다.<sup>95)</sup> 삼단전과 정·기·신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다. 하단전에 정이 갈무리되는 것은 동일하나 중단전에는 기가 갈무리되고 상단전에는 신이 갈무리된다는 것이다.<sup>96)</sup> 이는 神이 一身의 주인이므로<sup>97)</sup> 신이 갈무리되는 곳이 가장 중시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대체로 도가는 상단전을 중시하였고, 의가는 중단전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98)</sup> 神이 心에 갈무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腦에 갈무리되어 있느냐는 오랜 논쟁의 주제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나, 한의학적으로 심에 갈무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sup>99)</sup> 정은 근본이고 기는 신의 주인이며 형은 신의 집이다.<sup>100)</sup>

삼보론은 한의학의 초기 인간관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다. 음양오행론이 정점에 이른 시대에 살던 허준조차도 「東醫寶鑑·集例」에서 ‘精·氣·神은 장부와 백체의 주인이 되며, 도가의 三要와 석씨의 四大이 이것을 말한다.’<sup>101)</sup>라고 하였다. 현대한의학에서도 삼보론은 기초이론 중에 하나이나 기·형·질의 상호작용이 융합된 것으로 인간 내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기·신이 구조와 기능적인 면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와 기능적인 면을 분리하여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음양오행론이다.

#### (2) 陰陽五行論

음양오행론은 음양론과 오행론이 별도로 발전되다가 전국시대 추연에 의해서 합치되었다. 별도로 발전되었기에 당초 음양론과 오행론은 각자 완전한 이론으로서 설명되었을 것이나 음양오행설로 합일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음양론은 동양철학의 근간인 『주역』과 관련이

95) 許浚, 앞의 책, 「身形: 丹田有三」, 74쪽

96) 許浚, 앞의 책, 「頭: 頭爲天谷以藏神」, 201쪽

97) 許浚, 앞의 책, 「神: 神爲一身之主」, 94쪽

98)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총론에 해당되는 신형문에서는 중단전을 중시한 견해를 수록하였고, 각론인 두문에서는 상단전을 중시한 견해를 수록하였다. 허준은 중단전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99) 조현영, 『통속 한의학 원론』, 112-113쪽

100) 許浚, 앞의 책, 「身形: 保養精氣神」, 74쪽

101) 許浚, 앞의 책, 「集例」, 69쪽 ‘精氣神, 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謂此也’

92) 許浚, 앞의 책, 「審病: 診病之道」, 337쪽

93)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168-169쪽

94)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38쪽

값다. 太極인 一에서 陰陽 二氣가 생겼으며,<sup>102)</sup> 음양은 상호 對待的 관계에 있다.<sup>103)</sup> 對는 相反, 相敵한다는 뜻이고, 待는 相合, 相需한다는 뜻이다. 음양의 의의는 우주자연과 물질의 변화현상에 대한 正·負를 표시하는 부호로써 구체적으로 음은 물질을 가리키고, 양은 변화의 현상을 가리킨다. 음양은 相互依存, 相互制約, 相互轉化의 연계성이 있다.<sup>104)</sup>

음양론이 한의학에 적용되면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에 다양하게 응용된다. 인체의 조직구조를 음양의 속성으로 분류하는데, 상부는 양이고 하부는 음이며, 체표는 양이고 체내는 음이며, 등은 양이고 배는 음이며, 육부는 양이고 오장은 음이며, 기는 양이고 혈은 음이며, 升·出은 양이고 降·入은 음이다. 음양론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이론이다.<sup>105)</sup>

오행론은 尙書의 「洪範九疇篇」에 기재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sup>106)</sup> 우주 간에 운행하는 원소로서 만물을 낳게 한다는 오종의 원소 즉 木·火·土·金·水 등 五象의 상호 억압과 조장하는 氣化關係에 의하여,<sup>107)</sup> 우주의 모든 현상과 만물의 생존을 관찰하여 설명한 일종의 사상체계이다. 음양론은 二象의 상대성으로 우주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이지만, 오행론은 오상의 연쇄적 관계, 즉 유기적 순환성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천체의 운행, 계절의 기후, 생물의 성쇠 등 모든 事象을 영구히 상생과 상극으로 설명한다.

음양오행론은 2천년 정도 동아시아를 지배했다.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음양론과 오행론이 독자적 이론체제로 성립되었기에 초기의 음양오행론과 말기의 그것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상호보완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상충하여 명확한 경계를 짓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음양론과 오행론이 별도로 응용된 것은 많으나 같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음양론을 오행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오행론을 음양으로 설명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동의보감』에서도 ‘음양오행’이란 용어가 함께 쓰인 것은 단 한 번에 지나지 않는다.<sup>108)</sup> 삼보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장 중요한 한의학 기초 및 임상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태생적 결함은 아직도 노정되어 있다.

### (3) 四大五常論

허준은 2천년 동안 존속한 음양오행론을 개편하여 四大五常이라는 체계를 만든다. 허준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을 조명하였다.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 의학적 최적화를 위하여 인간을 새로운 도구로 정형화하였다. 따라서 『동의보감』은 이러한 허준의 인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장부도」에서는 天人相應論과 形色論을 논하였고, 신형문에서는 心身論, 男女論, 老少論, 稟賦論 등을 거론하였고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養生論을 논하였다. 내경편에서는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四大五常論을 전개하였고, 외형편에서는 외형을 상하·좌우·전후·표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잡병편에서는 六經形證, 雜病形證, 環境影響論(四時晝夜, 高低, 四方, 地理, 貴賤, 職業, 社會相) 등을 논하였다.

허준의 다양한 인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경」편에 전개된 四大五常論이다.<sup>109)</sup> 의학은 인간이라는 밀폐된 상자를 얼마나 잘 모델링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요즘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간 내부를 상당부분 조영할 수 있지만 정형화되지 않아 치료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양방병원에서

102)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坤), 「繫辭上」, 1057쪽 ‘易有太極, 是生兩儀’

103)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坤), 「繫辭上」, 1010쪽 ‘一陰一陽之謂道’

104) 김완희, 『한의학원론』, 43쪽

105)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陰陽應象大論」, 73쪽

106) 김완희, 앞의 책, 53쪽

107) 김완희, 앞의 책, 39쪽 상생의 원리는 河圖에서 시원되었고, 상극의 원리는 洛書에서 기원한다.

108) 허준, 앞의 책, 「虛勞: 古庵心腎丸」, 448쪽

109) 김남일 외,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15쪽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나 인체관은 「내경」편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료보다는 검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대오상론은 2천여 년 동안 축적된 음양오행론이 총괄된 것으로 음양론과 오행론의 어색한 동거를 일거에 정리하여 사대와 오상으로 잘 버무린 이론이다. 이로써 인간 내부를 보다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근간으로 생리, 병리, 진단, 치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sup>110)</sup>

허준의 다양한 인간관은 자연과의 상호 영향을 중시한 천인상응론, 인간 내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색론으로 총괄될 수 있는데 천인상응론과 형색론은 인간내부를 구성하고 운행하는 사대오상론의 결과물이다. 四大는 精·氣·神·血을 의미하며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形을 형성한다. 五常은 肝·腎·脾·肺·腎 오장을 의미하며 인체를 운용하는 주체가 되며 質을 형성한다. 四大는 体が 되고 形이 되어 構造·組織이 되며, 五常은 質이 되고 象이 되어 機能·運行이 된다.<sup>111)</sup>

四大는 精·氣·神·血을 의미하며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形을 형성한다. 五常은 肝·腎·脾·肺·腎 오장을 의미하며 인체를 운용하는 주체가 되며 質을 형성한다. 四大는 体が 되고 形이 되어 構造·組織이 되며, 五常은 質이 되고 象이 되어 機能·運行이 된다.

사대와 오상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는 신형의 처음에 정의된 것과 같다. 形氣가 시작되는 것을 정의하면서 太易, 太初, 太始, 太素를<sup>112)</sup> 정의하는데 태시는 형이 시작되는 것이고 태소는 질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로써 형질이 완성된다.<sup>113)</sup> 사대로 형이 형성되고 오상으로 질이 구성되어 완전한 개체로 형기를 이룬다. 허준의 사대오상론은

110) 김남일, 「『東醫寶鑑』의 목차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醫林 통권 317』, 2005, 41쪽

'한국의 한의학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준의 의학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11) 許浚, 앞의 책, 「身形: 身形藏府圖」, 72쪽

'皆稟四大五常, 假合成形'

112)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周易研究 4집』, 232쪽

113)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之始」, 72쪽

한의학의 융성기인 조선중기에<sup>114)</sup> 당시 최고조에 이른 조선성리학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허준의 위대함은 오랜 세월 지배해온 음양오행론의 모호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인간관 즉 사대오상론으로 정리한 데 있다.

허준은 天人相應論, 形色論, 心身論, 男女論, 老少論, 稟賦論, 養生論, 四大五常論, 外形論, 六經形證, 雜病形證, 環境影響論(四時晝夜, 高低, 四方, 地理, 貴賤, 職業, 社會相) 등 다양한 인간관을 논하였다. 인간은 가장 복잡한 생물체이기에 이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도구를 통하여 나온 결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간과 질병을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인간관 중에서 핵심은 바로 四大五常論이다. 인간의 내부를 정형화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천인상응론은 사대오상으로 이루어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고, 형색론은 사대오상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형색을 통하여 사대오상을 유추할 수 있다. 진단이 형색에서 시작하며 형색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sup>115)</sup>

#### (4) 四象論

허준의 사대오상론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하여 인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이를 익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를 양성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조선말에 이르러 시골에 갈수록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라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의학을 창안하기 위해<sup>116)</sup> 이제마는 『동의보감』을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은 『방약합편』 등 이전의 요약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전의

114)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1992,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1쪽

115) 許浚, 앞의 책, 「審病: 診病之道」, 337쪽

11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96쪽

요약본들은 『동의보감』 뼈대를 활용하여 의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요약한 것이 대부분인데, 『동의수세보원』은 새로운 인간관으로 『동의보감』을 정리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칙연산과 같은 단순한 도구를 만들어냈다.<sup>117)</sup>

사상론은 사대오상론을 집약한 것인데, ‘四’는 四大처럼 體가 되고 形이 되어 構造·組織이 되며, ‘象’은 五常처럼 質이 되고 象이 되어 機能·運行이 된다. 四와 象은 이질적인 것이어서 함께 쓰이기 어려운데, 이제마는 체와 질, 형과 상, 구조와 기능, 조직과 운동을 하나의 체계로 엮으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sup>118)</sup> 心을 중앙의 태극으로 놓고 魄·비·간·신을 四維의 四象으로 보아<sup>119)</sup> 태소음양의 장단변화로 인간을 정형화하였다.<sup>120)</sup> 『동의수세보원』은 백성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 소중화로서의 조선성리학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의학의 정수를 깨우친 지혜로 만든 의학서적으로 독창적이며 효과적이다.<sup>121)</sup>

이제마는 허준의 形色論, 心身論, 四大論, 五常論, 外形論을 채택하여 사상론을 완성하였으며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지리, 귀천,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반면, 천인상응론, 남녀론, 노소론, 품부론, 육경형증, 잡병형증 등은 배제하였고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사시주야, 고저, 사망, 사회상 등과 관련하여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인간의 개개인의 내경적 차이에 집중하여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인간 이외의 부분이나 공통적인 병인에 대하여는 과감히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핵심을 간략히 요약하는데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인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녀노소 등 공통요인이나 외부 요인이 모두 내경적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상론의 장점이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117) 송병일 외, 『사상의학』, 54쪽

118)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坤)』, 明文堂, 1999 重版: 繫辭上傳, 1057-58쪽

119) 송병일 외, 앞의 책, 60쪽

120) 李濟馬, 앞의 책, 『四端論』, 4쪽

121) 송병일 외, 앞의 책, 39쪽

### (5) 현대적 해석과 한의학의 과제

허준의 사대오상론은 지적 기능을 탑재한 컴퓨터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컴퓨터의 초기 단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었지만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펌웨어가 생겼고 컴퓨터의 내용을 담는 콘텐츠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즉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는 四大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가 다양해지면 자체 운용 메커니즘을 지니게 되는데, 자료의 생성, 자료의 확장, 자료의 정리, 불필요한 자료의 폐기, 중요한 자료의 저장 등 자료의 생성과 저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쉽없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五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삼보론, 음양오행론, 사대오상론, 사상론 등 모두 지금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용한 인간관이지만 현대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의학발달의 성과나 기술발달의 성과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 한의학적 인간관을 모두 포용하면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한편, 뉴턴이후 세계를 지배한 과학적 세계관과 인간관은<sup>122)</sup> 이미 한계에 봉착하였다. 환원주의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접근은 몰이해로 결론 났으며 다시 통합, 통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의학의 현대화를 표방하면서 과학적 인간관을 도용하는 것은 오랜 한의학적 성과를 온전히 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에 봉착한 도구를 사용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전통 한의학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한 새로운 인간관의 출현은 한의학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필수요건이 될 것이다.

## III. 結論

122) Stephen F. Mason, 『A History of the Sciences』, Abelard-Schuman Limited, 1970 6th Ed, 291쪽

허준은 오랜 세월 한의학이 탐구한 인간관을 집대성하였기에 다양한 프리즘을 통하여 인간을 바라볼 수 있었다. 허준의 인간관은 『동의보감』 전체에 스며있다.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장부도」에서는 天人相應論과 形色論을 논하였고, 요약편에 해당하는 「신형」문에서는 心身論, 男女論, 老少論, 稟賦論 등을 전개하여 養生論으로 마무리하였다. 「내경」편에서는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四大五常論을 전개하였고, 「외형」편에서는 외형을 상하·좌우·전후·표리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잡병」편에서는 六氣形證, 六經形證, 雜病形證, 環境影響論(地理, 四時, 晝夜, 社會相) 등을 논하였다.

허준의 천인상응론은 상관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우주론, 환경론 그리고 인간론을 하나로 묶어 천인합일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시대적 사고로 치부될 수 있으나,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허준의 심오한 통찰이 내포되어 있다. 천인상응론은 환경영향론에서 보다 세밀하게 전개되는데 동아시아 의학의 정수인 양생론의 근간을 이루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하여 함께 공존하는 합리적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파괴된 환경이 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이에 대한 각성으로 시작된 현대 환경운동은 허준의 천인상응론과 결합되어야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형색론은 사대오상의 차이나 변화가 형색으로 드러나므로 형색을 통하여 사대오상을 진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천인상응론과 함께 가장 중시되었다. 형색론은 형태론과 섹택론으로 나누어지고, 형태론은 장단·대소·비수로 세분되며, 섹택론은 흑백·창눈·후박으로 세분된다. 형색론은 오랜 세월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형색맥증을 통하여 인체 내부를 비파괴 검사하는 것은 한의학의 정수이며 자랑이다. 대부분 양방검사가 부분파괴검사이며, 진단과 치료가 불일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탁월한 것이다. 형색맥

증 중에서 형색은 가장 중요한 진단방법이며, 치료나 양생의 경과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형색론은 체질론에서도 필수도구가 되며 『동의보감』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허준의 인간관의 근간은 「내경」편에 전개된 四大五常論이다. 四大는 精·氣·神·血을 의미하며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形을 형성한다. 五常은 肝·心·脾·肺·腎 오장을 의미하며 인체를 운용하는 주체가 되며 質을 형성한다. 四大는 体が 되고 形이 되어 構造·組織이 되며, 五常은 質이 되고 象이 되어 機能·運행이 된다. 四大五常論은 인간의 내부를 정형화하였다. 천인상응론은 사대오상으로 이루어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고, 형색론은 사대오상의 결과가 형색으로 드러나기에 이를 통하여 사대오상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심신론, 남녀론, 노소론, 품부론, 양생론, 외형론, 육경형증, 잡병형증, 환경영향론 등 여타 다른 도구들도 사대오상을 다양한 각도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허준의 인간관은 사대오상론으로 집약되며 강령에 해당되는 천인상응론과 형색론도 사대오상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허준의 사대오상론은 陰陽論과 五行論의 어색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陰陽五行說을 體用 관계로 풀어서 설명했다. 三才 혹은 三寶사상에서 출발한 三寶論이 음양설과 오행설로 전개된 후 鄒衍에 의해 음양오행설로 통합되는데, 2천여 년의 어색한 만남을 조선성리학에 근거하여 四大五常論으로 정리했다. 허준의 인간관은 2천여 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한 음양오행설과 조선성리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허준이 사대오상론을 정리한 후 3백여 년이 지나 이제마는 이를 四象으로 통합하여 설명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사대오상론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꿰뚫고 있어 요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허준의 다양한 프리즘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허준의 인간관은 지금도 대부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유용하지만 현대화의 필요성이 있

다. 그동안의 의학이나 기술발달의 성과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 한의학적 인간관을 모두 포용하면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한편, 20세기 이후 주도한 과학적 세계관과 인간관은 이미 한계에 봉착하였다. 환원주의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접근은 물이해로 결론 났으며 다시 통합, 통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의학의 현대화를 표방하면서 과학적 인간관을 도용하는 것은 오랜 한의학적 성과를 온전히 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에 봉착한 도구를 사용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전통 한의학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한 새로운 인간관의 출현은 한의학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필수요건이 될 것이다.

#### IV. 參考文獻

單行本

1. 金主烈 編譯,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上』, 一中社, 1998, 서울
2. 具萬玉,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 I』, 혜안, 2004, 서울
3. 김남일·신동원·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2005, 10쇄, 서울
4.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서울
5. 金完熙, 『한의학원론』, 성보사, 1999년 3쇄, 서울
6.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서울
7.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서울
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芝山出版社, 1997, 서울
9.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芝山出版社, 1997, 서울
10.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芝山出版社, 1997, 서울
11.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乾)』, 明文堂, 1999 重版, 서울
12.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坤)』, 明文堂, 1999 重版, 서울
13. 동방미디어, 『선조실록』,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제공, 서울
14. 두산동아사서편집국, 『동아 백년옥편』, 두산동아, 2000 4쇄, 서울
15. 미우라 구미오, 이승연 옮김, 『주자와 기 그리고 몸』, 예문서원, 2003, 서울
16.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上』,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서울
17. 송일병외, 『四象醫學』, 集文堂, 2001 1판 4쇄, 서울
18.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4, 2쇄, 서울
19.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서울
20. 야마다 케이지 지음, 김석근 옮김, 『朱子の 自然學』, 통나무, 1998, 서울
21.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외, 『통섭: 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2005년, 서울
22.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2차인쇄, 北京
23. 劉安, 『淮南子』, 上海古籍出版社, 1993, 4次 印刷, 上海
24.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2004 4쇄, 서울
25. 이동희, 『조선조 주자학의 철학적 사유와 쟁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서울
26. 李相信, 『歷史學 概論』, 신서원, 2004 4쇄, 서울
2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신일문화사, 1964, 서울
28. 李浚川,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역, 『醫易學思想』, 법인문화사, 2000, 서울
29. 李挺, 『醫學入門』, 高麗醫學, 1989, 서울
30. 李挺, 『原本編註醫學入門(上)』, 南山堂, 1991 재판, 서울
3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6 3판3쇄, 서울
32. 張璐, 『張氏醫通』, 一中社, 1992년 影印, 서울
33. 全炳機, 『韓國科學史』, 이우출판사, 1982, 서울
34. 程國彭, 경희대 한의과대학 50기 졸업위 역, 『醫學心悟』, 정담, 서울
35. 제임스 러브록, 홍유희 옮김, 『가이아-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2004, 서울
36. 趙東일 외, 『기학의 모험 2』, 들녘, 2004, 서울
37. 趙燾 니담, 이석호 옮김, 『中國의 科學과 文明 I』, 을유문화사, 1989 재판, 서울
38. 趙현영, 『통속한의학 원론』, 학원사, 2005 7쇄, 서울
39. 陳大舜, 맹웅제 외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서울

40.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北京
  41. 최재천, 『인간과 동물』, 궁리출판, 2007, 서울
  42. 許浚, 『原本 東醫寶鑑 完營重刊影印本 新增版』, 南山堂, 1998, 5刷, 서울
  43. 許浚, 윤석희 외 옮김, 『대역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경남
  44. 허탁·이요성 역주, 『주자어류』, 청계, 1999, 서울
  45. 洪元植 監修, 朴贊國 著,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上』,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서울
  46. Bohdan T. Kulakowski 외, 『Dynamic Modeling and Control of Engineering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rd Ed, Cambridge
  47. Guyton & Hall,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W.B. Saunders, 1996 9th, Pennsylvania
  48. Paul U. Unschuld, 『Medicine in China - a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Los Angeles
  49. Stephen F. Mason, 『A History of the Sciences』, Abelard-Schuman Limited, 1970 6th Ed,
  50.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Bantam Books, Great Britain, 1995, London
- 論文/ 雜誌
1. 權奇星, 「退溪와 栗谷의 人間觀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8권, 2000,
  2. 金南一,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許浚의 醫易思想」, 韓國周易學會, 周易研究 4집, 1999. 12, 229-247쪽
  3. 金南一, 「東醫學과 中醫學은 같은 의학인가?」, 醫林 통권 316, 김씨, 2005, 서울
  4. 金南一, 「『東醫寶鑑』의 목차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醫林 통권 317, 김씨, 2005, 서울
  5. 金南一, 「韓國韓醫學史 再定立(하): 제7장 朝鮮後期の 醫學」, 韓國韓醫學研究所, 1995
  6. 金南一,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관한 試論」, 2004 韓國醫史學會 정기학술대회 논문, 2004
  7. 김수배, 「칸트의 인간관-실용적 인간학의 이념과 그 의의」,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37권, 1995
  8.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서울
  9. 白根基, 「『黃帝內經』에 나타난 形象에 관한 考察」, 12쪽,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朴成圭, 「許浚의 自然觀」,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6, 서울
  11. 박찬국, 「에리히 프롬의 인간관-실존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7권 2호, 1996,
  12. 서용화, 「퇴계의 인간관」,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107-107합집, 2000, 서울
  13. 安相佑, 「『醫方類聚』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2000, 서울
  14. 정행규, 「양생에 관한 문헌연구-동의보감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95
  15. 車雄碩,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2001, 서울
  16. 최영진, 「『주역』의 인간관-생태학적 해석」,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21권, 1998
  17. Donald Harper, 「The bellows analogy in Laozi V and Warring states Macrobiotic Hygiene」, Early China 20, 1995